



# 소외된 이들을 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 설계 인터뷰

고레에다 히로카즈(1962년생)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졸업 후 TV 다큐멘터리 연출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의 초기 다큐멘터리 작업들은 주로 사회적 소외 계층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영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후일 인간 관계와 삶의 이면을 깊이 탐구하는 영화적 접근으로 이어졌다.

1995년 영화 『환상의 빛』으로 장편 데뷔한 이후, 『아무도 모른다』(2004)와 『걸어도 걸어도』(2008) 등에서 일상 속의 가족과 인간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감정의 과장 없는 표현과 차분한 연출로 독특한 현실감을 주며, 관객들에게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다. 『어느 가족』(2018)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그의 영화 세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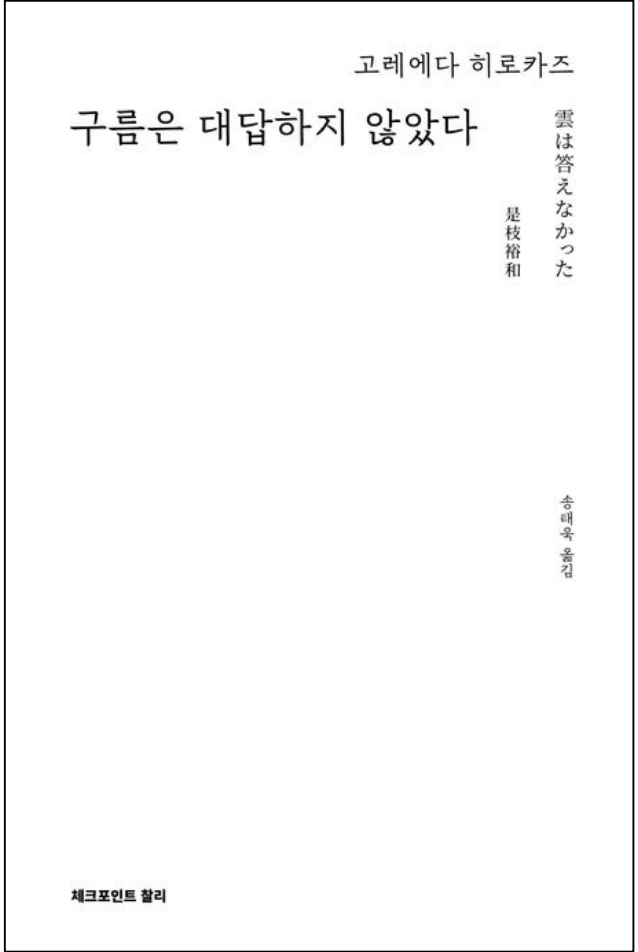
고레에다는 최근 작품 『괴물』(2023)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시선을 제시했다. 이 작품은 괴물이란 상징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감춰진 감정과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서로 다른 인물들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구성해 사건의 다면적 진실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적 상처와 불안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문제와 개인 간의 갈등을 섬세하게 다룬 고레에다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독님께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자주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십니다.  
어떤 점이 이러한 형식으로 영화를 찍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나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현실 속의 사람들이 가진 진솔한 이야기가 영화 속 허구적 이야기만큼이나 깊이 있고 울림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은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것에 큰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이 관객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행년도: 2022년 12월 19일

출판사: 체크포인트 찰리

페이지 수: 280쪽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회적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감독이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책에는 가족, 죽음, 기억, 소외와 같은 주제가 중심으로 다뤄지며, 이는 이후 그의 영화에서도 반복되는 주요 테마가 되었다.

고레에다는 책 속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가 경험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제가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로부터 얻은 생각들을 기록한 에세이집입니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책을 통해 저는 가족, 죽음, 기억, 소외 등의 주제를 탐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이후 제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자신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저에게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사회의 부조리나 개인의 삶 속에서 감춰진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이 이후 제 작품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들, 특히 가족과 인간 관계,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에서 다룬 미나마타 병 사건

1950년대 일본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규슈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인 미나마타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화학 공장 치소(주오제철소)가 세워지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 공장이 메틸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마을에 재앙이 닥쳐왔다. 주민들이 주식으로 삼던 어류가 오염되었고, 그 물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은 점차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며 “미나마타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나마타 주민들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시각과 청각이 손상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마을 전체가 절망에 잠기게 되었다. 주민들은 치소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치소 측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며 문제를 회피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 행정은 문제를 조사하는 듯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소와 결탁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업을 보호하려는 행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피해는 더욱 확산되었고 미나마타 지역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방치되었다.

결국 주민들은 참다못해 정의를 외치며 싸움에 나섰다. 언론과 환경 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미나마타병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졌고,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자 일본 정부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치소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미나마타는 환경 오염의 교훈을 전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에서 다룬 사건들

시즈오카 아동 유괴 살해 사건: 중학생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미성년자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후카사쿠 사건: 한 여성이 범죄의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억울하게 수감된 사건으로,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고레에다는 법적 시스템의 허점과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을 조명하고자 했다.

『환상의 빛』은 남편 이쿠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유미코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미코는 남편의 이유 모를 죽음에 대한 상처를 안고, 슬픔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이후 그녀는 재혼해 새로운 가정과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과거에 얽매어 평온을 찾기 어렵다. 영화는 유미코가 슬픔을 견디며 일상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려는 과정을 잔잔하게 담아낸다.



『환상의 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상의 빛』을 통해, 저는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남기고, 그 상실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내면을 지배하기도 하죠.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 남겨진 사람은 더 큰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유미코라는 인물을 통해, 그 무거운 감정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색해 보려 했습니다.





『어느 가족』 노부요와 린

많은 작품들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소외된 가족들을 많이 다루시는데요,  
작품에서 표현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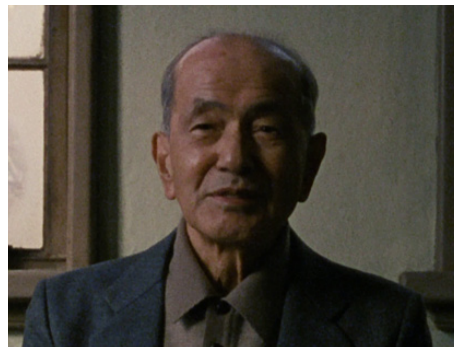
『환상의 빛』 이쿠요와 요이치

저는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쉽게 소외되곤 하죠. 『아무도 모른다』 같은 작품은 1988년 도쿄에서 실제 발생한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통해, 사회가 그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주제는 저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가족』을 예로 들면, 혈연이 아닌 유사가족의 형태를 통해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함께 살아가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 또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랐습니다.

『브로커』 소영과 우성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죽음 이후 하나의 기억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장면은 삶의 다양한 기억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 단 하나의 기억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 감정을 반영하고, 관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 기억들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죽은 이들이 사후 세계로 넘어가기 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단 하나의 기억을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은 중간역에 머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 선택한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억이 완성되면 영원히 그 장면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모든 기억은 사라진다.



『괴물』에서 미나토와 요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숨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두 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억압은 무엇인가요?



『괴물』 미나토와 요리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감정적 유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과 애정은 사회가 규정한 ‘일반’과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숨겨져야만 하죠. 영화 속에서 “남자가” 또는 “남자다움”과 같은 표현이 무심코 사용되는데, 이를 듣는 소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관객들이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괴물』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소년 미나토가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나토가 사라진 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괴롭힌 가해자가 같은 반 친구 요리라고 믿게 된다.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과정에서, 영화는 각기 다른 시선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통해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를 조명한다.



『어느 가족』 노부요

고레에다 감독님께서는 안도 사쿠라 배우와 여러 작품에서 협업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가족』과 『괴물』에서 엄마 역할로서 그녀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도 사쿠라(安藤サクラ)는 1986년 2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배우다. 아버지는 배우이자 감독인 오쿠다 에이지, 어머니는 에세이스트인 안도 카즈이다. 예술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2007년 영화 '바람의 끝'으로 데뷔한 이후, '백엔의 사랑'(2014), '어느 가족'(2018) 등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다.



『괴물』 무기노 사오리

안도 사쿠라는 캐릭터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녀와 함께 작업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감정이 화면에 담깁니다. 특히 『어느 가족』과 『괴물』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사쿠라는 현실적인 감정과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이는 관객들이 그녀의 캐릭터를 통해 실제 삶의 일부를 경험하게끔 만들죠. 또한 사쿠라의 연기는 항상 현실과 맞닿아 있어, 제가 추구하는 영화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작품 속 인물들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지며, 그녀와의 협업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세계는 가족과 인간 관계,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탐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의 영화에는 개인과 가족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가 자주 등장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지닌 단절과 고독을 부드럽게 비추어낸다. 감독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풀어지는 과정을 조용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관객이 자신과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작품에서는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유대가 중심이 된다. 『어느 가족』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비혈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며, 관객에게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감독은 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사회가 규정한 가족의 틀을 넘어선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시선은 현대인의 고립과 소외감을 다루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상기시킨다.

또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자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같은 작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부모가 가지는 책임과 사랑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관객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극적인 변화를 겪기보다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변화하며, 이들의 감정과 행동은 현실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 관객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일상 속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진지하게 다루며, 가족과 유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예술적 매체로 자리 잡는다. 그의 영화는 관객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게 하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따뜻한 시선으로 기억되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작품 속에서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과 일상의 순간들을 사실적으로 포착하며, 이를 통해 관객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영화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며, 섬세한 연출로 그 내면을 깊이 탐구한다.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른다』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의 일상을 묘사하면서, 그들 내면에 자리한 상처와 고독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감독은 극적이거나 자극적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소소한 장면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공감을 이끌어낸다.

또한, 고레에다는 인간의 결핍과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그는 관객들이 인물들과 함께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연대와 치유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감독의 영화가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인생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나아가게 만든다. 『걸어도 걸어도』 같은 작품은 가족의 불완전함을 그려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온기를 발견하게 한다.

감독의 영화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감정의 깊이와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관객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잃기 쉬운 인간미와 따뜻함을 일깨우며, 일상의 소중함과 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하고 있다.